



"겨울에서 봄@안녕 하신가영"

해적 ☀[해] ☾[달] ☆[별] 실력가늠자 ✍_1703호



무심한계절을지나따뜻한봄이오면.나를걱정한다던너의그마음을알까.얼어붙은날들을지나.따스한내가되었으면하는.외로운계절하나
1703_[문법]+[만흥]+[초토의 시 1]+[국토 서시]+[화왕계]+[어상]+[눈길]



☀️ ☆ 1703호

문법>

01_ 다음 <보기>의 음운 현상을 아래의 항목에 맞춰 보세요.

보기

비음화 | 비음이 아니었던 음운이 앞위의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소리나게 됨

유음화 | 유음이 아니었던 음운이 앞위의 유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소리나게 됨

받침규칙 | 음절 말음에 위치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음운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의 대표음으로 바뀌어 소리나게 됨

구개음화 | 구개음이 아니었던 음운이 전후의 구개음(대체로 'ㅣ' 모음)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으로 바뀌어 소리나게 됨

된소리되기 | 된소리가 아니었던 음소가 앞뒤 음운의 영향으로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나게 됨

거센소리 되기 | 거센소리가 아니던 두 자음이 만나 발음되는 과정에서 거센소리로 바뀌어 소리나게 됨

이중모음 되기 |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 발음되는 과정에서 이중모음으로 바뀌어 소리나게 됨

자음군 단순화 | 음절 말음에 위치한 겹자음이 겹자음 중 하나로만 소리나게 됨

연음화 | 받침이 있는 음운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앞말 받침의 일부 혹은 전부가 뒷말의 첫소리로 옮겨서 소리나게 됨

ㅅ첨가 |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ㅅ이 덧붙

ㄴ첨가 |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ㄴ이 덧붙

교체 |

첨가 |

축약 |

탈락 |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이 아닌 경우 |

02_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아래의 항목을 형태소 단위로 나누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

형태소_ 의미를 지닌 최소의 단위

ㄱ 자립 형태소 | 형태소 중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형태소

<->

ㄴ 의존 형태소 | 형태소 중 자립하여 쓰일 수 없는 형태소

ㄷ 실질 형태소 | 형태소 중 구체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

<->

ㄹ 문법(형식) 형태소 | 형태소 중 문법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

ㄱ_구름이 높고 낮음

ㄴ_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던 어떤 날

- ① ㄱ의 의존 형태소는 '-이', '-고' 2개이다. O/X
- ② ㄱ은 3개의 실질 형태소와 3개의 형식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O/X
- ③ ㄴ은 모두 의존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문장이다. O/X
- ④ ㄱ과 ㄴ의 자립 형태소를 모두 더하면 6개이다. O/X
- ⑤ ㄱ과 ㄴ에서 자립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형태소의 개수를 모두 더하면 6개이다. O/X

03_ <보기>의 설명을 잘 보고 갑~을 중 ㉠과 ㉡과 ㉢이 모두 들어 있는 문장을 골라 보세요.

보기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성분들의 집합으로, 특성에 따라 ㉠성상 관형사와 ㉡지시 관형사, 그리고 ㉢수 관형사로 분류할 수 있다. 성상 관형사는 피수식 부분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 주고, 지시 관형사는 피수식어의 방향이나 대상을 지시하며, 수 관형사는 피수식어에 수량이나 순서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 ㉠ 여러 사람들이 이 요리를 먹으려고 사흘 전부터 기다려 왔다.
- ㉡ 오랜 친구끼리는 아무 말도 필요가 없다.
- ㉢ 세 번이나 번호를 입력한 끝에 겨우 그 집의 문을 열 수 있었다.
- ㉣ 그냥 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잘 돼서 기분이 좋다.
- ㉤ 난 사장이고 넌 사원이야 쟤 인턴이고 걔 회장이야



04_ 다음 문장들은 문법적으로 어딘가 이상한 문장들입니다. 이상한 부분을 지적한 뒤 적절히 고쳐보세요.

갑_이것은 르누아르의 그림이다.

을_그와 그녀의 문제풀이 방식은 서로 틀리다.

병_휴가 동안에 그는 오직 밥과 음악만 먹고 살았다.

정_그는 나의 손에 '데자와'와 '솔의 눈' 두 캔을 쥐어 주었다.

무_세라야 선생님께서 빨리 오시래.

05_ <보기>의 품사들을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분류해 보세요.

보기

부사 / 형용사 / 명사 / 수사 / 관형사
조사 / 대명사 / 동사 / 감탄사

체언 ⇨

용언 ⇨

수식언 ⇨

독립언 ⇨

관계언 ⇨

06_ 아래의 괄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어휘를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한 번씩만 씁니다.

보기

배제排除 / 제고提高 / 제공提供 / 제안提案 / 지양止揚
지향志向 / 유보留保 / 평이平易 / 화신化身 / 간주看做
비등比等 / 상이相異

- ① 당신이 []해 주신 의견 잘 받았습니다. 반영은 안 될 것 같지만.
- ② 선원들의 사기를 []하기 위해 선장은 항해를 5분 일찍 끝낼 수도 있다.
- ③ 사진과 실물이 너무도 []해서 내 마음에 제법 큰 상처를 입었다.
- ④ 채점 후 아쉽지 않은 성적, 그것이 우리의 []점이다.
- ⑤ 식탁 위 켄터키튀김닭 박스를 기쁨에 차 열었을 때, 수북하게 쌓여 있던 것은 뼈들 뿐이었다. 가족들이 날 []하고 그들만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 ⑥ 결석하면 당연히 과제도 안 한 것으로 []하겠다.
- ⑦ 문제가 적당히 어려워야지 너무 []하기만 하면 학생들은 또다른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다.
- ⑧ 아파서 이틀을 못 먹었더니 배고픔의 []이 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 ⑨ 해적 선장이 []하는 문제들은 그럭저럭 불만하다.
- ⑩ 문제도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선택지로만 들이대는 모자란 행동은 21세기에는 좀 []돼야 한다.
- ⑪ 어려운 문제는 정답 내는 걸 좀 []해가면서 문제를 풀란 말이야. 무식하게 붙어 싸우는 사람이 손해라고!
- ⑫ 그 집의 주력 메뉴인 아갈밥의 특징은 밥과 아르헨티나산 갈비의 양이 거의 []할 정도로 육류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문학> 고전문문편>

- 01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뿔집을 짓노라 흐니
- 02 그 모른 놈들은 웃는다 훈다마는
- 03 어리고 하암*의 뜻에는 내 분인가 흐노라 <제1수>
- 04
- 05 보리밥 풋는 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 06 바윗 곳 물?의 슬?지 노니노라
- 07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 08
- 09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뉘흘 바라보니
- 10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흐라
- 11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몰내 도하흐노라 <제3수>
- 12
- 13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흐라
- 14 이제도 헤여든 소부 허유(巢父許由) | 낙뎡더라
- 15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 16
- 17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릅실샤
- 18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훈 일도 아니 맛더
- 19 다만당 두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히라 흐시도다 <제5수>
- 20
- 21 강산(江山)이 도타 훈 둘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 22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 23 아므리 갑고자 흐야도 히올 일이 업세라 <제6수>

윤선도, '만흥'@17E수특

*하암: 시골에 사는 건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알마초: 알맞게.

*만승: 천자의 지위.

01_정리없이 정답없이 나는 막 [해시#]지

⇒

02_출제자의 [시어읽니]

- ① '뿔집'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놈들'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어리고'는 (□겸양의 / □젊음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하암'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분'은 (□분노를 드러내기 위한 /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알마초'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슬?지 노니'는 것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녀나쁜 일'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뉘'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그리던 님'(□물리적 / □심리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말슴'과 우움'의 주체는 (□뉘 / □님)으로 볼 수 있다.*
- ⑫ '삼공'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⑬ '소부 허유'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⑭ '인간 만스'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⑮ '강산(江山)을 덕히'는 것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⑯ '님군'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대비되는 이미지를 통해 시상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O/X
- ② 의인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O/X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④ 상황을 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⑤ 대상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O/X
- ⑥ 다양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⑦ 상징적 이미지의 시어들을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O/X
- ⑧ 비교의 방법을 통해 화자의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⑨ 각 수의 행들을 3음보로 구성하여 율격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⑩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⑪ 대상의 부재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O/X
- ⑫ 고사의 인물을 차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O/X
- ⑬ 충, 효를 기반으로 한 유교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⑭ 화자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 상황이 드러나 있다. O/X
- ⑮ 운명론에 바탕을 둔 화자의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 O/X



문학> 현대운문편>

[가]

- 01 판잣집 유리딱지에
- 02 아이들 얼굴이
- 03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 04
- 05 내리쬐이던 햇살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 06 나도 돌아선다.
- 07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 08
- 09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 10 잣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 11 개나리가 망울졌다.
- 12
- 13 저기 언덕을 내리달리는
- 14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 15 죄 하나도 없다.
- 16
- 17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 18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구상, '초토'의 시 1'@17E수특

*초토_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땅

[나]

- 01 발바닥이 다 닳아 새살이 돋도록 우리는
- 02 우리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 03
- 04 숨결이 다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리도록 우리는
- 05 우리의 하늘 밑을 서성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 06
- 07 야윈 팔다리일망정 한껏 휘저어
- 08 슬픔도 기쁨도 한껏 가슴으로 맞대며 우리는
- 09 우리의 가락 속을 거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 10
- 11 버려진 땅에 돌아난 풀잎 하나에서부터
- 12 조용히 발버둥치는 돌멩이 하나에까지
- 13 이름도 없이 빈 벌판 빈 하늘에 뿌려진
- 14 저 혼에까지 저 숨결에까지 닿도록
- 15
- 16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 지필 일이다.
- 17 우리는 우리의 숨결을 보낼 일이다.
- 18
- 19 일렁이는 피와 다 닳아진 살결과
- 20 허연 뼈까지를 통째로 보낼 일이다.

-조태일, '국토 서시'@17E수특

01_정리없는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가] ⇨

[나] ⇨

02_출제자의 [시어뤄니]

[가]

- ① '판잣집 유리딱지'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아이들 얼굴'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해바라기'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햇살'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나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울타리'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개나리'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소녀의 미소'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앞니가 빠진' 모습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죄 하나도 없'는 모습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술 취한 듯'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웃으며 앞장을 서'는 '그림자'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⑬ '발바닥이 다 닳'는 것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⑭ '우리의 땅을 밟'는 것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⑮ '하늘 밑을 서성이'는 것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⑯ '야윈 팔다리'는 (□노력의 / □부끄러움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⑰ '버려진 땅'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⑱ '흔'과 '숨결'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⑲ '삶을 불지피'는 것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⑳ 여러가지들을 '보태'는 일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가와 나 모두 비유를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O/X
- ② 가와 달리 나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과 통일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③ 가와 나 모두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 있다. O/X
- ④ 가와 나 모두 대립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⑤ 나는 가와 달리 화자의 희생 이미지가 드러내고 있다.* O/X



- ⑥ 가와 나 모두 속죄양 모티프가 작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O/X
- ⑦ 가와 나 모두 열거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⑧ 가와 달리 나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바탕으로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⑨ 나와 달리 가는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⑩ 가는 나와 달리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으로 시상을 다채롭게 전달하고 있다.* O/X

04_제시문과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의 땅, 즉 국토는 국민들에게 민족의 '얼'이 서려있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은 곳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국토가 시련과 고난을 맞이했을 때, 민중들은 국토의 시련과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국토의 정상화를 소망하게 된다.

제시문 [가]에서는 1950년대의,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국토의 모습이 '초토'로, [나]에서는 1970년대의 어수선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국토의 모습이 '버려진 땅'으로 드러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다양한 시선과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①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현재 상황을 민족의 '얼'이 겪는 고통스런 상황으로 여길 것이다. O/X
- ②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국토의 정상화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O/X
- ③ 가의 화자는 '소녀'에게서 '초토'의 정상화 가능성을 찾고 있다. O/X
- ④ 나의 화자는 '버려진 땅'의 정상화를 위해 민중이 스스로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O/X
- 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국토를 바라보며 정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O/X



문학> 고전산문 복합편>

[가]

01 신이 이야기 하나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화왕이 처음으로 오자, 이를 꽃동산에 심고 장막을 둘러 보호하였더니, 봄철을 당하여 어여쁘게 피어 백화를 능가하여, 홀로 뛰어났습니다. 이에 가까운 곳 먼 곳에서 곱고 어여쁜 꽃들이 분주히 와서 화왕을 뵈려고 애를 쓰던 차에, 홀연히 한 가인이 붉은 얼굴과 옥같은 이에 곱게 화장하고 맴시 있는 옷을 입고 가우똥거리며 와서 암전히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첩은 눈같이 흰 모래발을 밟고, 거울처럼 맑은 바닷물을 대하고 봄비로 목욕하여 때를 씻고, 맑은 바람을 시원타 하고 제대로 지내는데, 이름은 장미라 합니다. 왕의 착하신 덕망을 듣고 향기로운 장막 속에서 하룻밤을 모시려고 하오니, 왕께서는 저를 허락하시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02 또한 한 장부가 있어, 벼에 가죽띠를 띠고 흰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늙고 병든 것처럼 걸으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나와 말하기를 “나는 경성 밖 큰길가에 살고 있는데, 아래로는 푸르고 넓은 야경을 내려다 보고, 위로는 높디높은 산색을 의지하고 있으며, 이름은 백두옹*이라 합니다. 생각하옵건대, 주위에 거느리고 있는 자들이 제공하는 물품이 비록 풍족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하여도, 비단으로 쓴 상자에 쌓아 둔 것들 중에는 반드시 기운을 보충할 좋은 약과 독을 없앨 아픈 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명주실과 삼[麻]실과 같이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골풀과 누런 띠처럼 거친 것을 버릴 수 없고, 무릇 모든 군자들은 궁할 때를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데, 왕께서도 또한 뜻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03 어떤 이가 말하기를 “이렇게 두 사람이 왔는데, 그중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화왕이 가로되 “장부의 말에도 또한 도리가 있지만, 미인은 얻기가 어려우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였습니다. 장부가 나와 말하기를 “나는 왕이 총명하여 사리를 아시는 줄로 알고 왔더니, 지금 보니 그게 아닙니다. 무릇 임금된 자로서 간사하고 아침하는 자를 친근히 하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음이 드뭅니다. 이런 까닭에 맹가(孟軻)*가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고, 풍당(馮唐)*은 중랑서장(中郎署長) 벼슬을 하면서 백발이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이와 같았으니 제가 이를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하자 화왕이 “내가 잘못하였구나! 내가 잘못하였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설총, '화왕계(花王戒) '@17E수특

*백두옹: 할미꽃의 별칭

*맹가: 맹자.

*풍당: 한나라 때 사람으로 중랑서장의 벼슬에 올랐으며, 직언을 잘하기로 유명하였다.

[나]

01 국화에게 서리를 이겨내는 높은 절개가 있기 때문에 진(瞗)나라 도잠(陶潛)이 이 꽃을 사랑한 것이다. 도잠이야말로 은일인*(隱逸人)이다. 이 꽃을 가리켜, 주무숙(周茂叔)이 은일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은일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이지, 국화 자신은 실로 은일하지 않다.

02 왕궁, 귀인, 부호로부터 여염의 천한 선비에 이르기까지 뜨락이나 동산에 심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고금의 시인 문사들이 가사나 서설을 지어 훌륭히 찬양했으며, 또 화가들은 아름답

게 그 모습을 그렸다. 심지어 유몽(劉蒙), 범지능(范至能), 사정지(史正志), 왕관(王觀) 등은 그 종류를 빠짐없이 모아 국보(菊譜)를 만들었으니, 과연 국화를 보고 바위와 숲이 어울린 험한 빈터에 깊숙이 숨어 삶으로써 사람들이 그 이름을 모르는 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혁혁한 그 명성은 모란보다 더 높다.

03 그러니 참으로 꽃 중에서 은일은 ‘어상(禦霜)*’이라 하겠다. 이 꽃은 담홍색으로 송이가 많으며 잎은 국화와 같은데 줄기가 약간 가늘다. 늦가을에야 비로소 피며, 서리가 내릴수록 그 빛깔이 더욱 선명하니, 아마 도잠이 이 꽃을 보았다면 그 사랑이 국화보다 못하지 않았을 것인데, 어찌된 연유로 지금토록 아름다운 빛깔과 높은 은일의 덕을 홀로 간직하고 세상에 그 이름을 숨기고만 있을까.

04 나 역시 이제야 이 꽃을 보았으니 이와 같은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필시 깊숙한 산언덕 꼭대와 넝쿨이 엉킨 사이에 절개를 가진 꽃들이 어상처럼 숨어 살고 있을 것이다. 참답게 산야에 숨어 사는 선비들은 이런 꽃들을 알겠지만 설령 알고 있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꽃들이 도잠처럼 글을 지어 이름을 널리 드러내 주기를 바라라.

-신경준, '어상'@17E수특

*은일인_속세와 떨어져 숨어지내는 사람

*어상_꽃의 이름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가] =>

[나] =>

02_[빠]르게[바]르게

- ① 가와 나 모두 대조의 기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O/X
- ② 가와 나 모두 대화의 방법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O/X
- ③ 가와 나 모두 고사를 인용하여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O/X
- ④ 가와 나 모두 교훈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⑤ 가와 나 모두 대상을 의인화 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O/X
- ⑥ 가의 '장미'와 '백두옹'은 서로 반목하고 있다. O/X
- ⑦ 가의 '장미'는 아름답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존재에, '백두옹'은 투박하지만 입바른 말을 하는 존재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O/X
- ⑧ 가의 '화왕'은 '장미'와 '백두옹' 모두를 중용해야 함을 깨닫고 있다. O/X
- ⑨ 나의 글쓴이는 '은일함'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O/X
- ⑩ 나의 글쓴이는 '국화'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드러내고 있다. O/X



문학> 현대소설편>

- 01 [앞부분 줄거리] 어머니는 마을의 개량 사업을 통해 지붕을 고치고 싶어 하지만 아들인 '나'는 어머니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며 어머니의 바람을 외면한다. '나'의 외면이 못마땅한 아내는 어머니가 지붕을 개량하고 싶은 속내를 묻게 되고 둘의 대화는 눈길에 얽힌 과거의 사연으로 이어진다. 어머니는 집안이 망하여 팔린 집에서 아들이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 한 후 다음 날 새벽에 눈길을 걸으며 아들을 배웅하였다고 말한다.
- 02
- 03 “간절하다뿐이었겠냐. 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 굽이 돌아온 그 땀살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만 푸르르 날아올라도 저 아그 냇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외지지만 한 그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돌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땀살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 04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 05 “울기만 했겠냐. 오목오목 디더 눈 그 아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제.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아그 앞길만 빌고 왔제…….”
- 06 노인의 이야기가 거진 끝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이제 할 말을 잊은 듯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었다.
- 07 “그런디 그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이라 그렇저렇 시름없이 걸어온 발걸음이 그래도 어느 참에 동네 뒷산까지 당도해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길로는 차마 동네를 바로 들어설 수가 없어 잣등 위에 눈을 쓸고 아직도 한참이나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더니라…….”
- 08 “어머님도 이젠 돌아가실 거처가 없으셨던 거지요.”
- 09 한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듯 갑자기 노인을 채근하고 나섰다. 그 목소리가 울먹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 10 나 역시 더 이상 노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나마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다. 아내의 추궁에 대한 그 노인의 대꾸가 너무도 두려웠다. 노인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 11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이번에도 그러는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 12 “여보, 이젠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당신도 말을 좀 해 보세요.”
- 13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세차게 흔들어 깨웠다. 그녀의 음성은 이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꼭꼭 눌러 참으며 내쳐 잠이 든 척 버틸 수 밖에 없었다.
- 14 음성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노인뿐이었다.

- 15 “가만두거라. 아침 길 나서기도 피곤할 것인디 곤하게 자고 있는 사람 뭣하러 그러냐.”
- 16 노인은 일단 아내의 행동을 말려 두고 나서 아직도 그 옛애기를 하는 듯한 아득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당신의 남은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 17 “그런디 이것만은 네가 좀 잘못 안 것 같구나. 그때 내가 뒷산 잣등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일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랬던 건 아니란다. 산 사람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네 문간방 한 칸이라도 산 몸뚱이 깃들일 데 마련이 안 됐겠냐.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퍼져 들어 있는데, 눈에 덮인 그 우리 집 지붕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더구나. 더구나 동네에선 아침 짓는 연기가 한창인디 그렇게 시린 눈을 해 갖고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설 수가 있더냐. 그놈의 말간 햇살이 부끄러워서 그럴 엄두가 안 생겨나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자고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이청준, '눈길'@17E수특

01_정리없이 정답없이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작품 바깥에 위치한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O/X
- ② 과거의 사건이 현재 중심 인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O/X
- ③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작중 상황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O/X
- ④ 대화가 진행되며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드러나고 있다. O/X
- ⑤ 대화가 진행되며 과거의 사건에 대한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O/X
- ⑥ 방언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O/X
- ⑦ 과거와 현재가 반복 교차되며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O/X
- ⑧ 친모를 '노인'이라 부르는 점에서 친모에 대한 '나'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O/X
- ⑨ '아내'는 '나'와 '노인' 사이를 이어가며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O/X
- ⑩ 과거에 대해 '노인'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알게된 '나'는 그에 따른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O/X



03_제시문과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

'집家'는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의, 식, 주의 근본이 되는 장소로, 문학 작품에서의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뿐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의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로도 의미를 드러낸다. 관리가 잘 되고 튼튼한 집이 거주하는 이들의 만족스런 심리 상황을 의미한다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거나 집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은 거주자들의 불안정, 불만족한 심리를 드러내는 소재로 기능한다.

이청준의 '눈길'도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는 '집'이라는 공간적 소재와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소재를 중심으로 중심 인물들의 심리와 행동을 통해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① 현재 노인이 '지붕을 고치고 싶어하는 것'은 현재 노인의 심리에 불편함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X
- ② 과거 팔린 '집'에서 아들이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던 '노인'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O/X
- ③ '나'의 부끄러움은 과거 '집'이 없던 시절의 '내' 모습을 아내가 알게 되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O/X
- ④ 서사가 진행되며 과거 '노인'이 경험한, '집'이 없어 고생을 했던 상황이 상세히 드러나고 있다. O/X
- ⑤ '나'의 '아내'는 과거의 '집'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인물이지만, 현재 중심 인물들이 겪는 '집' 상황과는 관계가 깊은 인물로 드러나고 있다. O/X
- ⑥ 과거 '노인'이 느꼈던 '부끄러움'은 자식에게 제대로 된 의식주의 기반을 제공하지 못한 데에서 온 불만족스러운 심리 반응으로 볼 수 있다. O/X
- ⑦ 과거와 현재 모두 중심 인물들은 '집'의 부재를 경험하며 심리적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⑧ '집'이야기를 접한 '아내'는 '나'와 '노인' 모두에게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⑨ '집'을 둘러싼 이야기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이야기를 진행하는 '노인'과 달리, '나'는 감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O/X
- ⑩ 과거 '노인'이 경험한 '아침 짓는 연기가 한창인' 집들은 '노인'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환기했을 것이다. O/X



문학> 수.희.시편>

- 01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왔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원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 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 02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 03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 04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노라.

-이곡, '차마설'@17E특

- *노둔(老鈍)하고: 늙어서 재빠르지 못하며 둔하고.
- *준마(駿馬): 빠르게 잘 달리는 말.
- *비복: 계집종과 사내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다양한 종류의 대조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 ② 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을 강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③ 설의적 표현을 반복하여 드러내 서술자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 O/X
- ④ 일상적 체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O/X
- ⑤ 열거의 방법을 통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 ⑥ 작품의 초반에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적 시각이, 후반에는 타인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O/X
- ⑦ 서술자는 여러 계층을 예로 들며 사람들이 계급, 계층 없는 평등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O/X

03_제시문과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

<전략>

사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었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지상(地上)의 적(籍)에서 사라져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살다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된 것이다. 물론 일상에 소요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요긴한 것들만일까?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主客)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所有史)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소유욕(所有慾)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을 뿐이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고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不辭)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착해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네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 하고 말았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 어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중략>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교훈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역리(逆理)이니까.

-법정, '무소유' 中

- ① <제시문>과 <보기> 모두 소유에 대한 서술자의 고찰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② <제시문>과 달리 <보기>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O/X
- ③ <제시문>은 <보기>와 달리 글을 쓰게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O/X
- ④ <제시문>과 <보기> 모두 종교와 관련지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⑤ <제시문>과 <보기> 모두 바른 소유의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O/X



+@ / +ㅈㅊㄴㅅㅁ

단[어]의[의]미

- 배제排除_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 제고提高_쳐들어 높임
- 제공提供_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
- 제안提案_안이나 의견으로 내놓음. 또는 그 안이나 의견
- 지양止揚_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하다
- 지향志向_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 유보留保_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미루어 둠
- 평이平易_까다롭지 않고 쉽다
- 화신化身_어떤 추상적인 특질이 구체화 또는 유형화된 것
- 간주看做_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봄. 또는 그렇다고 여김
- 비등比等_비교하여 볼 때 서로 비슷하다
- 상이相異_서로 다르다

미래에서온[고전문문]

해적 병설

[가] 설월이 만창한데@17E수특

- 01 눈과달이 창에가득 바람소리 불지마라
- 02 우리임의 신발소리 아닌것을 잘알지만
- 03 그리웁고 아쉬울때 임아닌가 생각난다

[나]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17E수특

- 04 창널란다 창널란다 이내가슴 창널란다
- 05 고무래창 가는살창 들장지문 열장지문
- 06 암들찌귀 수틀찌귀 배목걸쇠 들여다가
- 07 이따만한 장도리로 똑똑딱딱 광광박아
- 08 갑갑스런 이내가슴 창널란다 창춤내자
- 09 살다가막 답답할때 열어근심 덜고싶다

[다] 개를 여라문이나@17E수특

- 10 애완건을 열마리를 넘게넘게 기르지만
- 11 이개처럼 알미운개 이세상개 또있을개
- 12 미운사람 찾아오면 꼬리살랑 점프하트
- 13 뛰었다가 내렸다가 반갑게도 맞이하고
- 14 사랑하는 임이오면 뒷발버둥 왔다갔다
- 15 캉캉경경 짚어내어 임이돌아 가게하네
- 16 쇠밥남아 돌더라도 네줄밥이 있겠느냐



현대어 해설

[가]

- 01 눈오는 가운데 뜬 달이 창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바람아 불지 마라
- 02 신발 끄는 소리가 아닌 줄을 내가 분명하게 알지만
- 03 임이 그림고 아쉬운 때면 행여 임인가 하노라

[나]

- 04 창을 내고 싶구나, 창을 내고 싶구나.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 05 고무래 들창문, 가는 살의 장지문, 들창문, 여는 창문, 암돌쩌귀 수돌쩌귀, 배목걸쇠, 크나큰 장도리로 똑딱 박아서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 06 이따금 너무 답답할 때면 열고 닫아 답답함을 풀고자 하노라.

[다]

- 07 개를 열 마리 넘게 기르지만 이 개처럼 얄미운 놈이 있을까.
- 08 미운 님이 오면 꼬리를 뒹뒹 치면서 뛰어 올랐다 내리 뛰었다 하면서 반겨 맞이하고, 사랑하는 님이 오면 뒷발을 버둥거리면서 물러섰다가 나아갔다가 캉캉 짚어 돌아가게 한다.
- 09 신밥이 그릇그릇 아무리 많이 남을지라도 너 먹일 줄 있으랴?

원작품

[가]

- 01 설월(雪月)이 만창(滿窓)한데 바람아 부지 마라
- 02 예리성(曳履聲)*아닌 줄을 분명하게 알건마는
- 03 그림고 아쉬운 때면 행여 권가 하노라
-작자 미상, '설월이 만창한데'
*예리성: 신발을 끄는 소리.

[나]

- 01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 02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쩌귀 수돌쩌귀 비목걸 새 크나큰 장도리로 뚱뚱 바가 이내 가 슴에 창(窓) 내고자
- 03 잇다감 하 답답할 제면 여다져 불가 후노라
-작자 미상,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다]

- 01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되 요 개긋치 알미오라
- 02 위운 님 오며는 꼬리를 뒹뒹 치며 뛰락 느리 뛰락 반겨서 내듯 고 고운 님 오며는 뒷발을 버둥버둥 므 르락 나으락 캉캉 쯤져 서 도라가게 후다
- 03 신밥이 그릇 그릇 난들 너 먹길 줄이 이시랴
-작자 미상, '개를 여라문이나'



답_☀️)☆1703호

문법>

- 01_ 교체_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음절 끝소리 규칙
첨가_스첨가 / ㄴ첨가
축약_거센소리 되기, 이중모음 되기
탈락_자음군 단순화
아닌 경우_연음화
- 02_ X/O/X/O/O
- 03_ 1
- 04_ 감-르누아르를 그린 것인지, 르누아르가 그린 것인지, 르누아르의 소유인지 밝혀서 /
을_문맥 상 틀린게 아니라 다른 것임
병-음악은 먹는 게 아니라 듣는 것임->밤을 먹고 음악만 들으며 살았다
정-각 한 칸 씩인지 두 칸씩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움 /
무-경어의 대상이 어색함->선생님께 서 빨리 오라고 하셔로 고쳐야 함
- 05_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 용언-동사, 형용사 / 수-관형사, 부사 / 독립-감탄사 / 관계-조사
- 06_ 제안 / 제고 / 상이 / 지향
배제 / 간주 / 평이 / 화신
제공 / 지양 / 유보 / 비등

문학> 고전문문편>

- 01_ #자연종아 #속세싫어 #임금좋아
- 02_ 관 / 안 / 겹 / 관 / 겹
관 / 관 / 안 / 관 / 심
되 / 안 / 관 / 안 / 관
관
- 03_ O/O/X/O/X
O/X/O/X/X
X/O/X/O/O

문학> 현대문문편>

- 01_ [가] #폐허 #아이들 #울상 #흥겨움
#그림자
[나] #우리땅 #나라사랑
- 02_ [가]_안 / 관 / 관 / 안 / 안
안 / 관 / 관 / 관 / 관
관 / 관
[나]_관 / 관 / 관 / 노 / 안
관 / 관 / 관
- 03_ X/O/X/O/O
X/X/X/X/O
- 04_ O/X/O/O/X

문학> 고전산문 복합편>

- 01_ [가]_#장미불호 #백두옹호 #바람직
한왕의자세
[나]_어상♡>국화♡
- 02_ O/X/O/X/O
X/O/X/O/O

문학> 현대소설편>

- 01_ #미안함 #사랑 #집 #빽신부인 #찌
질한나
- 02_ X/O/O/X/O
O/X/O/O/X
- 03_ O/O/X/X/O
O/X/X/O/O

문학> 수.희.시편>

- 01_ #소유와 마음가짐 #소유의 본질
- 02_ O/O/O/O/O
O/X
- 03_ O/O/O/X/X